

제 1 장

2010년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김정호* · 김배성** · 송성환*** · 채광석**** · 한석호***** · 반현정***** · 장도환*****

목 차

- | | |
|---------------------|----------------------------|
| 1.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 3.3.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
| 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 동향 | 3.4. 농가부채 동향 |
| 1.2.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 4.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
|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 4.1. 농가구입가격 전망 |
| 2.1. 농업생산 동향 | 4.2. 농가판매가격 전망 |
| 2.2. 식품산업 동향 | 4.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
| 2.3. 농식품 수출입 동향 | 4.4. 농지이용과 농작물 재배 전망 |
| 3. 농가경제 동향 | 4.5.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전망 |
| 3.1. 농가교역조건 추이 | 4.6. 농가소득 전망 |
| 3.2. 농업경영비 추이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h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bs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song937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gscha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oha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an053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zzangdh@krei.re.kr

1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 동향

1.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

- 200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다.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0.8%(기관 평균)로 예상되나, 2010년에는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동향

단위: %, 실질GDP기준

	2007	2008	2009				2010(전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전세계	5.2	3.0	-1.1	0.9	-2.1	-0.8	3.1	3.0	2.6	2.9
선진국	2.7	0.6	-3.4	-0.1	-3.4	-2.3	1.3	2.0	1.6	1.6
미국	2.1	0.4	-2.7	-0.5	-2.5	-1.9	1.5	2.0	2.1	1.9
일본	2.3	-0.7	-5.4	-0.1	-5.8	-3.8	1.7	1.5	1.1	1.4
유로지역	2.7	0.7	-4.2	-0.6	-4.0	-2.9	0.3	1.6	0.9	0.9
개도국	8.3	6.0	1.7	4.5	0.8	2.3	5.1	6.1	5.3	5.5
아프리카 ¹⁾	6.3	5.2	1.7	4.6	1.7	2.7	4.0	5.8	3.7	4.5
아시아 ²⁾	10.6	7.6	6.2	6.1	4.1	5.5	7.3	7.5	7.0	7.3
중국	13.0	9.0	8.5	7.5	8.1	8.0	9.0	8.5	10.1	9.2
중동 ³⁾	6.2	5.4	2.0	3.9	-0.3	1.9	4.2	5.2	3.5	4.3
중남미	5.7	4.2	-2.5	2.1	-0.4	-0.3	2.9	4.0	2.9	3.3

주: 1) WB는 사하라 이남 지역만을 포함.

2) IMF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제외, WB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

3) IMF는 터키 포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December 2009.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June), 2008.

- 2010년 미국 경제는 고용 여건의 악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회복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으나, 금융시장과 주택경기가 안정을 찾아가고 가계소비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1.9%(기관 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경제는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2009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및 재고조정에 따른 생산 증가로 1.4%(기관 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 경제도 2009년 3/4분기 이후의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동유럽 국가의 경기 부진과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으로 0.9%(기관 평균)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내수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9.2%(기관 평균)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2. 국제 유가, 세계교역, 환율 전망

- 국제 유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급락하였으며, 2009년 3월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2009년 상반기 동안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3분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4분기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계절적 수요 증가의 요인이 겹치면서 배럴당 75달러 내외의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표 1-2. 국제 원유가격 동향(현물 기준)

단위: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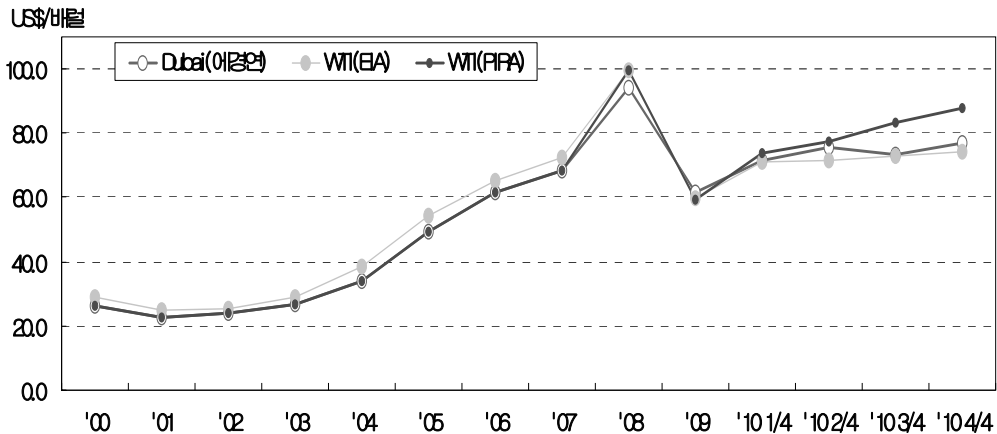
		2008	2009	2010(전망) ¹⁾				
				1/4	2/4	3/4	4/4	평균
에경연	Dubai	94.3	61.6	71.6	75.6	73.5	76.9	74.4
EIA	WTI	99.6	59.9	71.0	71.6	72.7	74.3	72.4
PIRA	WTI	99.6	59.5	73.8	77.6	83.5	87.9	80.7

주: 1) 각 기관의 2009. 11월 전망치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미국 석유산업연구소).

- 2010년 국제 유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석유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2009년 말의 높은 재고 수준과 투기거래 제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향후의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그림 1-1. 국제 원유 가격 추이



- 201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 교역량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세계 교역량과 환율 동향

		2007	2008	2009	2010(전망)
교역량 증가율(%)		7.3	3.0	-11.5	2.5
환율	엔/달러	117.8	103.3	93.6	99.3
	유로/달러	0.73	0.68	0.72	0.69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 2009년 달러화는 금융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2009년 엔화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실물경제 하강세가 완화되어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화도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어 강세를 지속하였다.

1.2.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1.2.1. 2009년 경제 동향

- 2009년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세로 반전에 성공하여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GDP는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서비스업도 꾸준히 증가하여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 2009년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여건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 1-4. 나라경제 동향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7	2008	2009				
			1/4	2/4	3/4	4/4 ¹⁾	연간 ²⁾
GDP	5.1	2.2	-4.2	-2.2	0.9	6.2*	0.2*
생산	6.9	3.0	-15.5	-6.2	4.2	9.0	-2.1
출하	7.2	2.4	-14.7	-5.8	2.1	7.4	-2.8
(수출)	10.2	7.1	-12.4	-4.7	0.8	8.8	-1.9
(내수)	4.9	-0.7	-16.3	-6.6	3.1	6.3	-3.4
재고 ³⁾	5.7	7.3	-5.8	-16.7	-13.9	-15.4	-12.9
민간소비	5.1	0.9	-4.4	-0.8	0.8	5.9*	0.3*
설비투자	9.3	-2.0	-23.5	-15.9	-7.4	10.2*	-9.6*
제조업 평균가동률(%)	80.3	77.2	65.8	73.7	78.9	77.3	73.9

주: 1) 생산, 출하, 수출, 내수, 재고 등은 계절조정지수이고, 4/4분기는 10~11월 평균치임.

2) 1~11월 평균치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 *는 한국은행 추정치 자료.

3)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KDI, 통계청.

- 2009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수출둔화 및 내수부진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수요증대, 기업수익성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산업 생산은 2009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부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출하는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부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8% 감소에 그쳤다.
 - 재고는 반도체·부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출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다.
 -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과 출하의 증가로 1/4분기 65.8%에서 4/4분기 77.3%까지 상승하였으며, 2009년 평균 가동률은 73.9%로 나타났다.
-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 경기하강 효과 등으로 인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이 크게 작용하여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농수산물은 연초의 환율 상승, 재배면적 축소 및 어획량 감소 등의 공급 충격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에 따른 국산축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를 나타냈다.
 - 생산자물가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영향 등으로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공산품(-1.6%)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0.2%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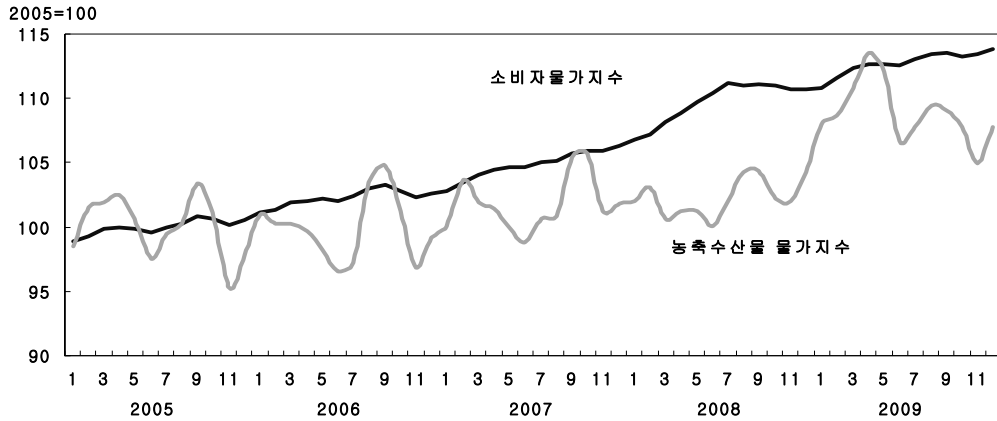
표 1-5. 물가 변동 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2.5	4.7	3.9	2.8	2.0	2.4	2.8
- 농수산물	1.9	0.5	7.2	9.9	4.9	3.9	6.5
생산자	1.4	8.6	4.2	-1.0	-3.2	-0.5	-0.2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2. 소비자 물가지수와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2009년 실업률은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1/4분기 3.8%에서 4/4분기 3.3%로 0.5%p 감소하였다.
- 산업별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고용지표(계절조정) 동향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1/4	2/4	3/4	4/4 ¹⁾	연간 ²⁾
실업자	783	769	908	943	886	809	887
실업률(%)	3.2	3.2	3.8	3.8	3.6	3.3	3.6
취업자	23,433	23,577	22,904	23,737	23,751	23,831	23,556

주: 1) 2009년 10월, 11월 평균치임. 2) 2009년 1/4~4/4까지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 2009년 3월 초에 1,50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개선 등으로 4/4분기에는 1,168원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276원으로 전년 대비 15.7% 상승하였다.

표 1-7. 환율 동향

단위: 원/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원/달러 ¹⁾	929.16	1,103.36	1,418.30	1,286.11	1,239.22	1,168.03	1,276.35
증감률	-2.7	18.7	48.2	26.3	16.2	-14.4	15.7

주: 1) 해당 기간 중(연중, 분기 중) 종가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10년에는 미국의 초저금리로 인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달러의 신인도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9년보다 낮은 1,100원 내외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 「2010년 거시경제전망」).
- 2009년 1/4분기 수출은 7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0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3,6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 2009년 수입은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한 3,2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표 1-8.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07	2008	2009 ¹⁾				
			1/4	2/4	3/4	4/4	연간
수출(A)	3,714.9	4,220.1	744.1	903.2	947.7	1,042.7	3,637.7
증감률	14.1	13.6	-25.2	-21.1	-17.6	12.0	-13.8
수입(B)	3,568.5	4,352.7	714.5	738.2	847.9	927.3	3,227.9
증감률	15.3	22.0	-32.6	-35.7	-31.0	1.3	-25.8
무역수지(A-B)	146.4	-132.7	29.6	165.0	99.8	115.4	409.8

주: 1) 2008년 12월 잠정치치를 이용하여 4/4분기를 추정.
 자료: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1.2.2. 2010년 경제 전망

- 2010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4.5% (기관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5%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고, 하반기에는 내수 확대 폭이 축소되면서 상반기 보다 둔화된 3% 수준이 될 전망이다.

표 1-9. 2010년 한국경제 전망

	발표시기 (월.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 흑자 (억 달러)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한국은행	12.11	0.2	4.8	2.8	2.8	3.7	3.5	430	170
KDI	11.12	0.2	5.5	2.8	2.7	3.7	3.4	415	162
삼성경제연구소	11.27	-	4.3	2.8	2.8	3.7	3.4	-	187
LG경제연구원	12. 7	0.2	4.6	2.7	2.7	3.6	3.5	432	178
OECD	11.19	0.1	4.4	2.7	2.8	3.8	3.6	-	-
IMF	11.25	-1.0	3.6	2.6	2.5	3.8	3.6	-	-

자료: 한국은행, 「2010 경제 전망」, 2009. 12.

KDI, 「KDI 경제 전망」, 2009. 11.

SERI, 「2010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2009. 11.

LG경제연구원, 「2009년 국내경제 전망」, 2009. 12.

OECD, Economic Outlook, #86, November 200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 2010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2009년보다 2.8%(한국은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9% 상승할 전망이다(한국은행).
- 2010년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2009년보다 0.2%p 감소한 3.5% 수준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 2010년 경상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출 및 수입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의 흑자 폭은 금년의 430억 달러 수준보다 감소하여 17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2009년 544억 달러 → 2010년 350억 달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적자폭이 확대(2009년 △114억 달러 → 2010년 △180억 달러)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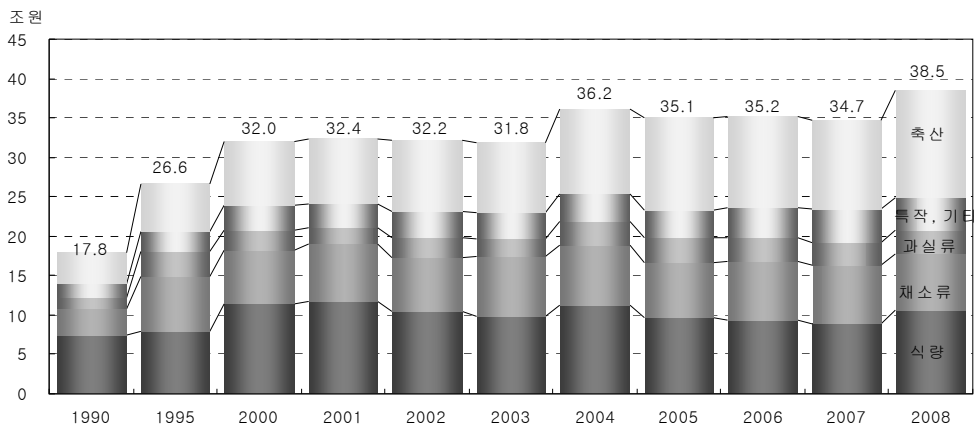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2.1. 농업생산 동향

2.1.1. 품목류별 생산액 변화

- 농업총생산액은 200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일부 품목의 증산에 힘입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물부가 추계한 2008년 농업생산액은 38조 4,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그림 1-3. 농업생산액 추이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 식량작물 생산액은 맥류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미곡, 잡곡, 두류, 서류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19.0%나 증가하였다.
 - 채소류 생산액은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양채류 등의 생산 감소로 전년보다 3.6% 감소하였다.
 - 과실류 생산액은 배, 포도, 감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사과, 감귤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다.
- 2008년 품목별 생산액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미곡, ②돼지, ③한우, ④우유, ⑤닭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5개 품목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51.4%를 차지하여 축산 부문의 성장과 아울러 농업경영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 그 밖에 ⑥계란, ⑦오리, ⑧수박, ⑨건고추, ⑩인삼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64.5%로 나타났다.

표 1-10.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변화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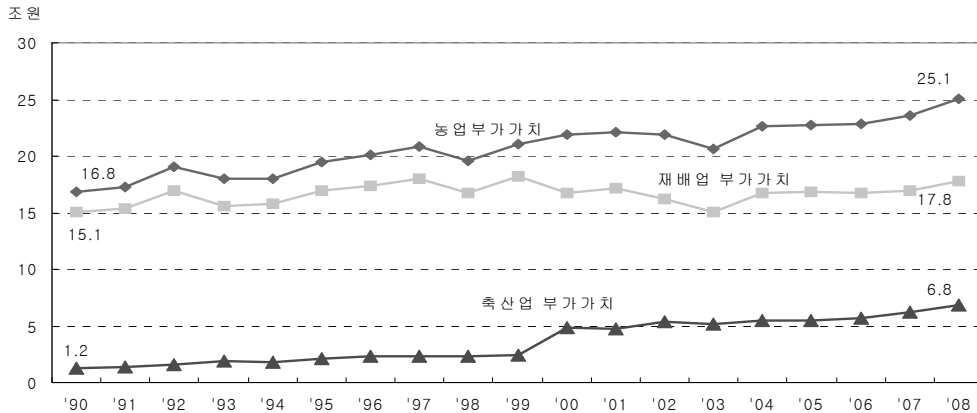
순위	1995			2000		2005		2008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비중
전체		266,015			319,678		350,889		384,698	
1	미 곡	67,598	25.4	미 곡	105,046	미 곡	85,368	미 곡	93,796	24.4
2	한육우	17,756	6.7	돼 지	23,720	돼 지	37,586	돼 지	40,853	10.6
3	돼 지	14,066	5.3	한육우	18,788	한육우	31,479	한 우	32,819	8.5
4	마 늘	12,190	4.6	우 유	13,517	우 유	15,513	우 유	16,041	4.2
5	고 추	11,996	4.5	고 추	10,439	닭	11,132	닭	14,294	3.7
누계		123,606	46.5		171,510		181,077		197,803	51.4
6	사 과	8,962	3.4	닭	8,208	계 란	10,853	계 란	11,586	3.0
7	우 유	8,556	3.2	계 란	6,512	수 박	8,920	오 리	11,544	3.0
8	닭	7,727	2.9	감 귤	6,336	건고추	8,606	수 박	9,393	2.4
9	감 귤	7,093	2.7	수 박	5,598	감 귤	8,108	건고추	9,117	2.4
10	포 도	6,085	2.3	마 늘	5,324	오 리	6,490	인 삼	8,749	2.3
누계		162,029	60.9		203,488		224,055		248,192	64.5

주: 2006년부터 한육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1.2. 농업부문 부가가치 변화

- 농업부문 부가가치(한국은행 추계)는 2000년 이후 생산액의 정체와 중간 투입재비의 증가로 인해 21~22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어 고부가가치 성장 작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23조 5천억원, 2008년에는 25조 1천억원을 기록하였다.
- 부문별로 보면 재배업의 성장은 정체를 보이는 반면에 축산업은 2004년 이후 연평균 6%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부가가치 성장률은 재배업이 5.3%, 축산업이 10.0%를 기록하였다.

그림 1-4. 농업부문 부가가치 추이(실질)



주: 2000년 이전은 2000=100 기준, 2000년 이후는 2005=100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2. 식품산업 동향

2.2.1.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 농림어업과 식품제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식품산업 부가가치는 2008년에 58조 4,6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2009년 상반기 실적은 30조 640억원으로 추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농림어업이 전년 동기 대비 1.7%, 식품제조업은 8.6% 증가하였다.

표 1-11. 농림어업 및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추계(명목)

단위: 10억원, %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연간	연간	상반기(A)	상반기(B)	(B/A)
전산업 합계	874,782	920,331	451,986	451,852	0.0
농림수산업	25,209	23,441	11,193	11,379	1.7
- 재배업	17,000	16,457	7,609	7,793	2.4
- 축산업	4,422	3,175	1,947	1,921	△1.3
- 임업	1,115	1,102	382	401	5.0
- 어업	2,141	2,174	986	1,015	3.0
- 농림어업서비스	531	533	269	249	△7.4
식품제조업	33,148	35,019	17,198	18,685	8.6
농식품산업	58,357	58,460	28,391	30,064	5.9
(농식품산업/전산업)	(6.7%)	(6.3%)	(6.3%)	(6.6%)	

주: 2008년과 2009년 식품제조산업 총생산액은 한국은행 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 증감률을 이용한 추정치임. 외식산업은 추정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계.

2.2.2. 식품제조업 생산 동향

- 2009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식료품 생산능력지수는 0.9%, 음료품 생산능력지수는 4.6% 증가하였다. 2009년 제조업 가동률은 4.5% 감소하였으며, 그중 식료품은 1.2%, 음료품은 6.9% 감소하였다.

표 1-12.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2005=100)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생산 능력지수 ²⁾	제조업	109.7	115.4	118.4	2.6
	식료품	101.1	98.6	99.5	0.9
	음료품	101.3	100.8	105.4	4.6
가동률 지수 ³⁾	제조업	100.4	96.8	92.5	-4.5
	식료품	98.2	98.8	97.6	-1.2
	음료품	99.2	102.7	95.6	-6.9

주: 1) 2009년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 지수는 1~11월의 평균임.

2) 생산능력지수는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 생산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함.

3) 가동률지수=생산실적/생산능력으로 원지수 기준 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3. 농식품 수출입 동향

2.3.1. 수출 동향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계한 2009년 1~11월 동안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총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07	2008	2008. 1~11	2009. 1~1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전 체	3,759	4,403	3,970	4,167	5.0
농산물	2,223	2,621	2,341	2,532	8.1
축산물	181	215	196	120	-39.0
임산물	128	118	111	155	39.2
수산물	1,228	1,448	1,322	1,361	3.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4. 농림수산물 부류별 수출 동향

단위: 천톤, 백만달러, %

	2008	2008. 1~11		2009. 1~11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림수산물	4,402.8	1,932.6	3,969.8	2,288.1	4,166.9	18.4	5.0
○ 농식품	2,954.5	1,398.0	2,648.1	1,685.0	2,805.7	20.5	5.9
〈신선〉	675.0	218.2	574.7	261.4	612.5	19.7	6.6
- 채 소	148.6	60.5	131.2	70.6	140.2	16.7	6.9
- 김 치	85.3	24.0	76.1	25.4	79.6	5.7	4.6
- 인 삼	97.2	1.8	77.7	2.3	89.8	28.5	15.6
- 화 훼	76.2	10.1	61.1	8.2	57.4	△19.5	△6.0
- 과 실	154.9	79.7	126.0	92.7	129.7	16.3	2.9
- 버섯류	23.2	6.6	18.5	13.6	27.3	104.9	47.4
- 돼지고기	17.7	9.6	17.0	11.0	9.7	14.4	△43.2
- 가금육	12.9	8.0	10.9	10.5	15.4	31.5	40.7
- 산림부산물	59.0	17.9	56.2	27.1	63.4	51.7	13.0
〈가공〉	2,279.5	1,179.8	2,073.4	1,423.6	2,193.2	20.7	5.8
○ 수산식품	1,448.3	534.6	1,321.7	603.0	1,361.2	12.8	3.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 김치, 자당, 팥이버섯, 새송이, 장미, 백합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다.
- 축산물 수출액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출은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은 크게 줄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였다.
- 임산물 수출액은 버섯 등 산림부산물과 목재류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하였다.

2.3.2. 수입 동향

- 2009년 1~11월 동안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1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였다.
- 농산물 수입액은 곡류, 두류, 채소류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하였다.
-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하였다.
- 임산물 수입액은 목재류 및 수목류 수입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하였다.

표 1-15.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07	2008	2008. 1~11	2009. 1~1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 체	19,242	23,199	21,180	19,007	-10.3
농 산 물	10,089	13,905	12,573	10,540	-16.2
축 산 물	3,235	3,352	3,093	2,232	-27.8
임 산 물	2,858	2,864	2,671	3,670	37.4
수 산 물	3,060	3,078	2,843	2,56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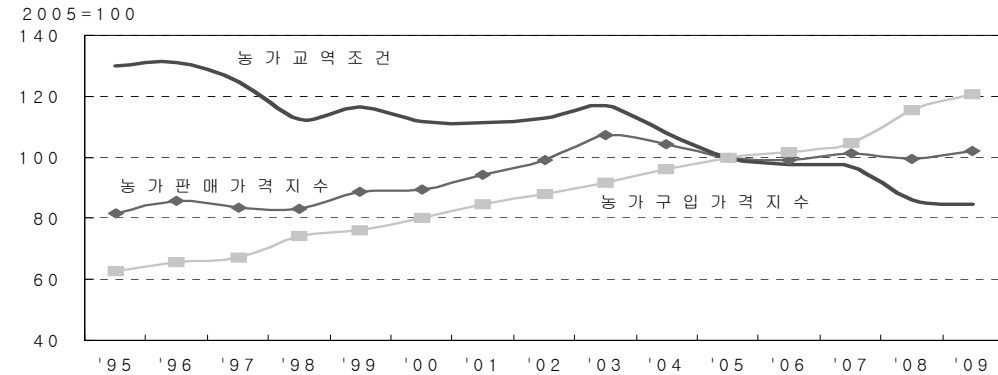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3 농가경제 동향

3.1. 농가교역조건 추이

- 농산물가지수에 의한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2000~2003년까지 다소 개선되다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5.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주: 2009년은 1~3분기 평균임.
자료: 통계청.

- 200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8%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가 4.6%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은 84.7로 전년 대비 1.7% 악화되었다.

표 1-16.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2006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
				1/4	2/4	3/4	평균	
농가판매가격지수(A)	99.2	101.4	99.4	102.7	103.4	100.4	102.2	2.8
농가구입가격지수(B)	101.8	104.8	115.3	119.7	121.2	120.9	120.6	4.6
농가교역조건(A/B×100)	97.4	96.8	86.2	85.8	85.3	83.0	84.7	-1.7

주: 2009년은 1~3분기 평균임.
자료: 통계청.

- 2009년 농가교역조건을 품목별로 추계하면, 쌀은 생산량 증가로 농가판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9.0% 악화되었다.
- 청과물 가운데 마늘, 양파, 토마토, 사과와의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 축산물의 농가교역조건은 농가구입가격이 농가판매가격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표 1-17.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
			1/4	2/4	3/4	평균	
쌀	92.4	77.8	75.6	70.1	66.8	70.8	-9.0
마늘	124.6	85.2	102.0	106.8	104.8	104.5	22.7
양파	65.6	109.7	128.4	116.0	88.5	111.0	1.2
토마토	98.1	66.8	81.9	75.5	62.5	73.3	9.7
사과	70.7	74.2	81.6	89.6	88.1	86.4	16.4
쇠고기	102.6	84.3	75.6	73.1	81.3	76.7	-9.1
돼지	85.3	89.2	84.4	88.1	94.0	88.8	-0.4

주: 1) 품목별 구입가격지수는 매 분기 발표되는 비목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각 품목별 생산비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2)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1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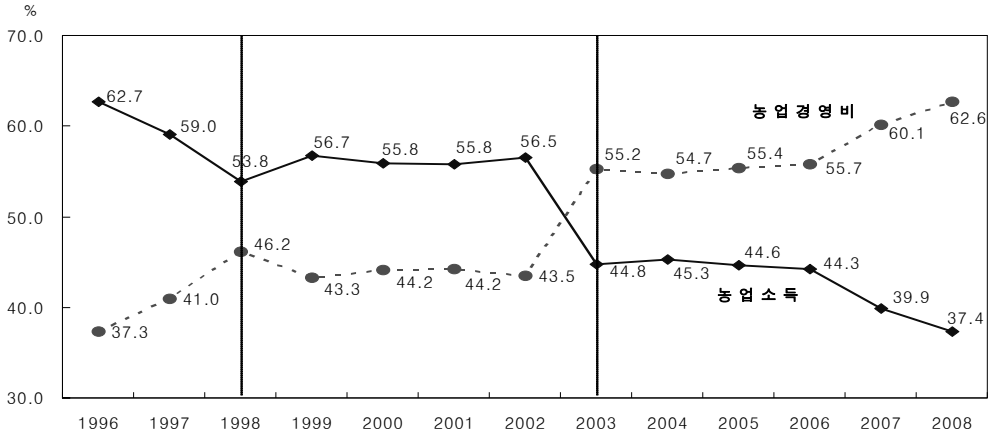
3.2. 농업경영비 추이

3.2.1. 농업경영비 비중의 변화

- 농가경제에서 농업소득과 경영비는 반비례하는 관계로, 2003년이 전환점이 되었다. 즉,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08년에는 62.6%를 차지하게 되었다.
- 최근의 농업경영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이 투입재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영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비 상승과 고용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림 1-6.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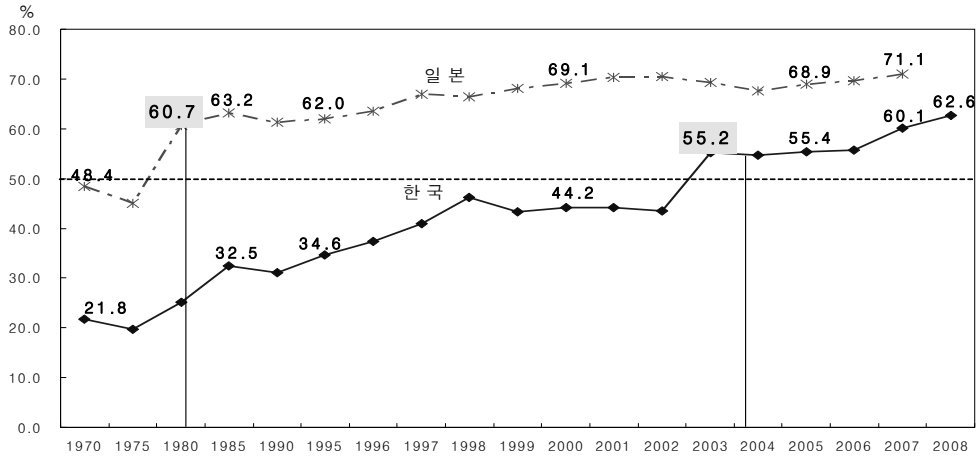


주: 농가경제조사 대상 표본농가는 5년마다 전체적으로 교체되며, 이에 따라 표본 교체연도에 조사결과에 편차가 발생함. 1998년과 2003년에 표본농가 교체가 있었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1970년에 농업경영비 비중이 50% 수준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 빠르게 상승하여 10년 후인 1980년에 60.7%를 기록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0.4%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07년에는 71.1%를 기록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 압박이 일본에 비해 훨씬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농업총수입 연평균 증가율(1970-2007): 한국 12.1%, 일본 12.1%
 -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1970-2007): 한국 12.1%, 일본 4.9%
-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4.2% 증가한 데 비해 경영비는 8.6% 상승하였다(일본은 각각 2.3%, 2.7%). 최근 들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경제 수지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7. 한·일 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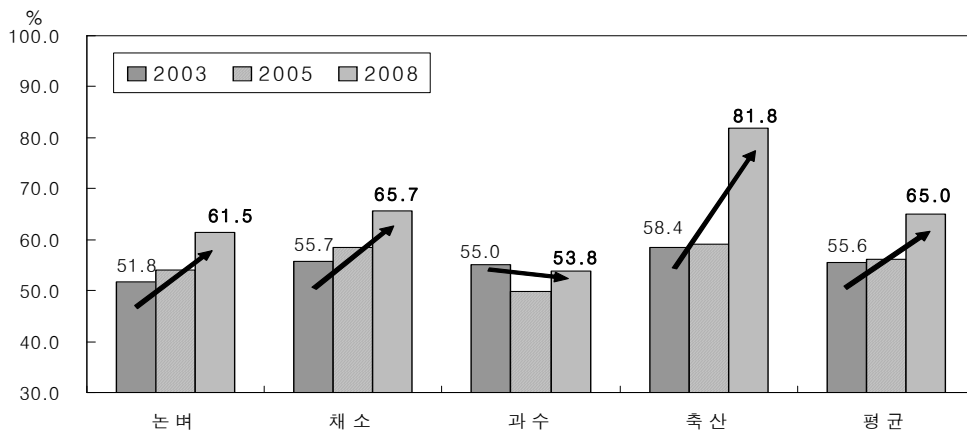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3.2.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 영농형태별로는 과수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논벼, 채소, 축산농가는 경영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2008년에 81.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8.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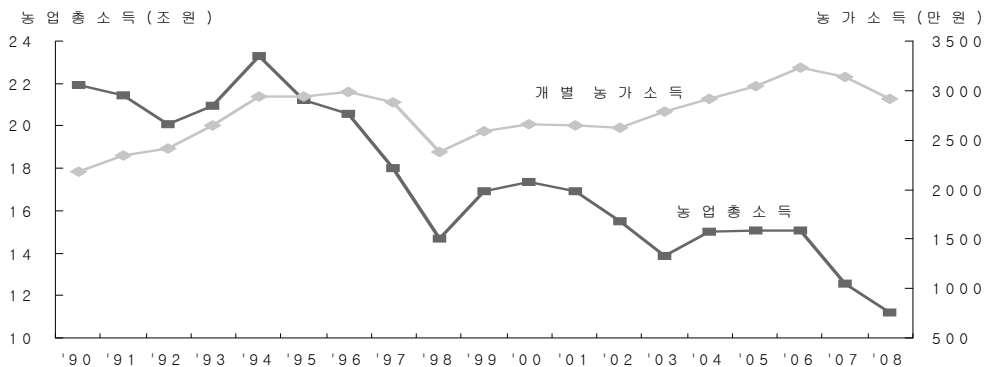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원자료 분석.

3.3.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3.3.1. 농가소득원 동향

- WTO 체제하에서 농업총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농업총생산액은 정체되는 반면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농업총소득은 1994년을 정점으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총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 수의 감소 속도는 완만하여 결과적으로 농가당 농업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의 호당 농업소득은 1,000~1,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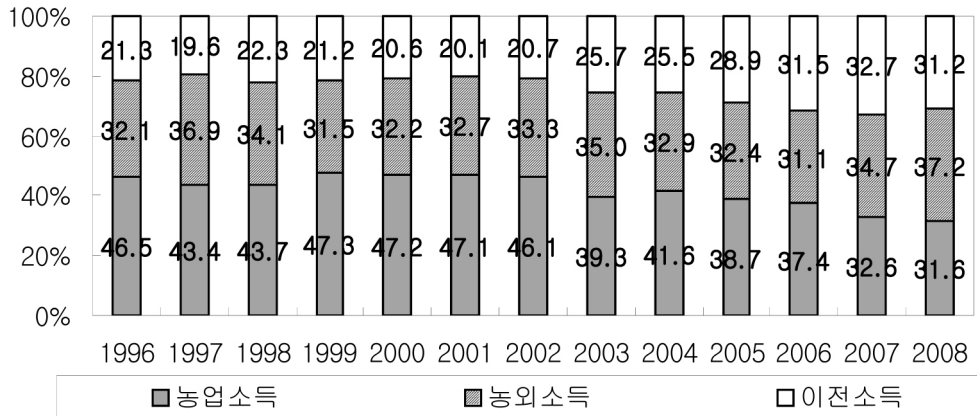
그림 1-9.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자료: 통계청.

-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은 6.2%씩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1.6%씩 증가하였다.
 -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0년 47.2%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8년 31.6%에 이른 반면, 이전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동기간 20.6%에서 31.2%로 증가하였다.

그림 1-10.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3년 이후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을 이전소득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18. 농가소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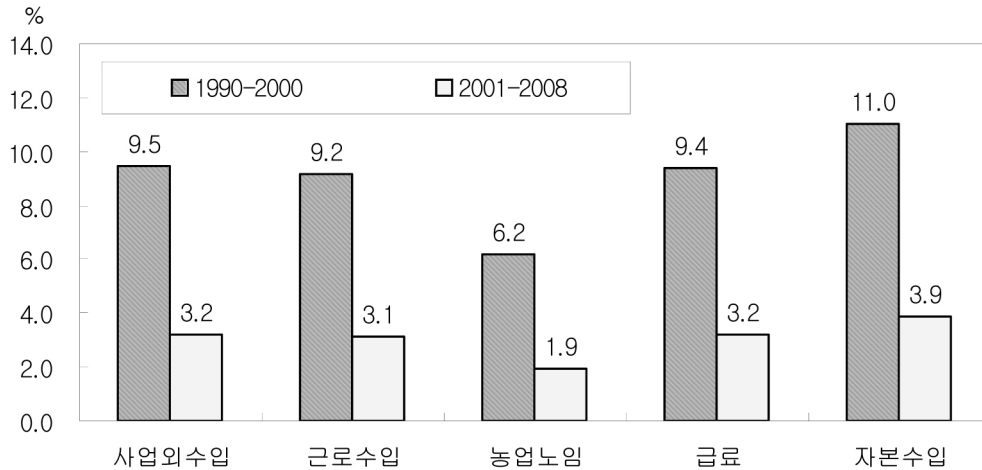
단위: 천원

	2005	2006	2007	2008
농가소득	30,503	32,303	31,967	30,523
농업소득	11,815	12,092	10,406	9,654
농업외소득	9,884	10,037	11,097	11,353
근로소득	6,360	6,273	6,886	7,275
이전소득	4,078	4,886	4,959	5,289
비경상소득	4,725	5,289	5,506	4,22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외소득은 사업외소득과 겸업소득으로 구성되며, 2008년에는 사업외소득 비중이 7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겸업소득은 25.5%로 나타났다. 농외소득의 성장 여부는 농업노동과 임금 등 근로수입의 성장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외수입의 성장 속도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990~2000년에는 연평균 9.5%씩 증가한 반면 2001~2008년에는 3.2%씩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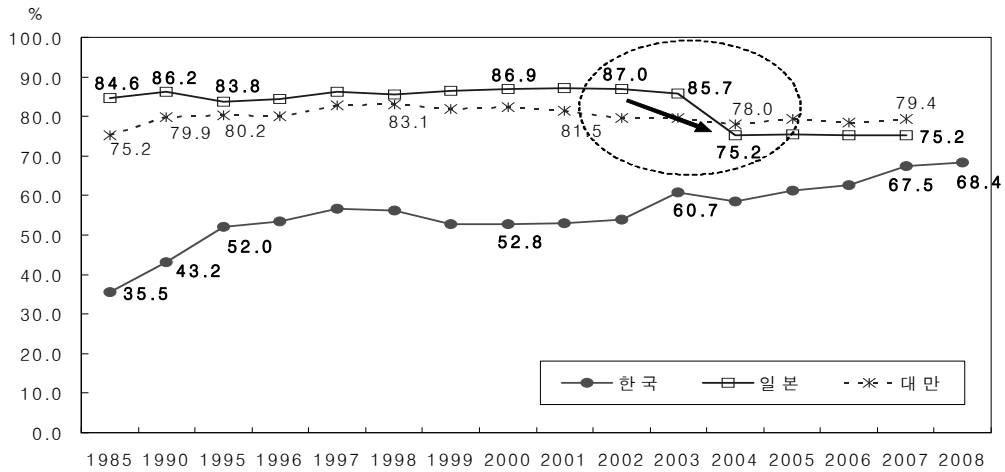
그림 1-11. 사업외수입 구성요소별 성장률 변화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외소득 의존도에 대한 한국·일본·대만의 3개 국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변화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 일본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이전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8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3년부터 하락하여 2004년에는 75.2% 수준으로 낮아졌다.
 - 대만에서도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1998년에 83.1%를 나타내는 등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현재 75.2%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1995년에 52% 수준에서 2003년에 60.7%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에 68.4%까지 증가하였다.
-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농가의 연령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령화 시대를 겪으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정체 혹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2. 한·일·대만 3국간 농외·이전소득 비중 추이



주: 농외·이전소득률 = [(농외소득+이전소득)/농가소득]×100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3.3.2. 도·농간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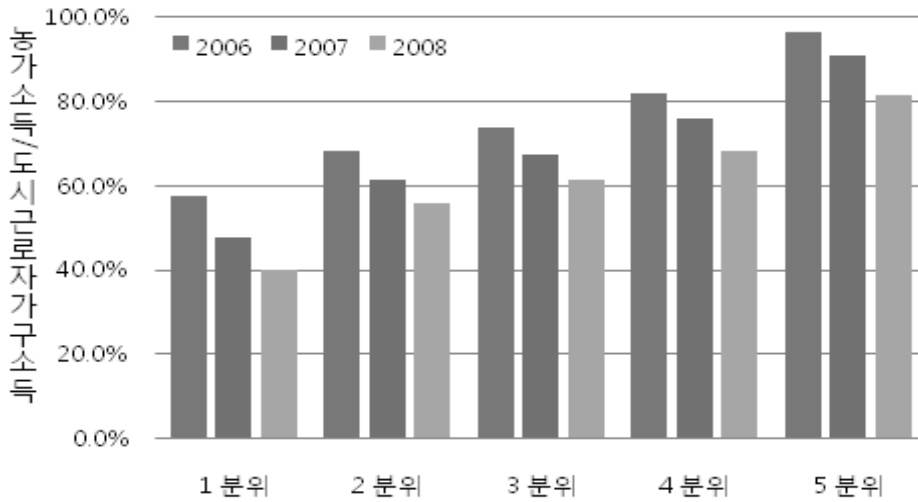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명목)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3년 이후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6%(명목소득)씩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4%씩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1-13.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그림 1-14. 소득계층별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 고소득계층(소득5분위 계층)의 농가소득은 2006년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96.6%에서 2008년에는 81.6%로 하락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그 차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어 2008년 소득1분위 계층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40.2%에 불과한 실정이다.

3.3.3.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

- 농가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4년 5분위/1분위 비율이 9.8배에서 2007년에는 10.7배, 2008년에는 11.2배로 증가하여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2004~08년 기간 동안 소득 1분위 저소득계층의 농가소득(명목)은 연평균 1.5% 감소하였으나 5분위 고소득계층은 연평균 1.7%씩 증가하였다.
- 농가소득 5분위 구성의 변화를 보면, 농가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농가의 연령별 비중은 2007년에 50대가 41.1%로 가장 많고, 60대 34.4%, 40대 이하 1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 농가는 8.3%이다.
- 농가소득 상위 20%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70대 농가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40대 이하 농가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 농가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농가 계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이므로 고령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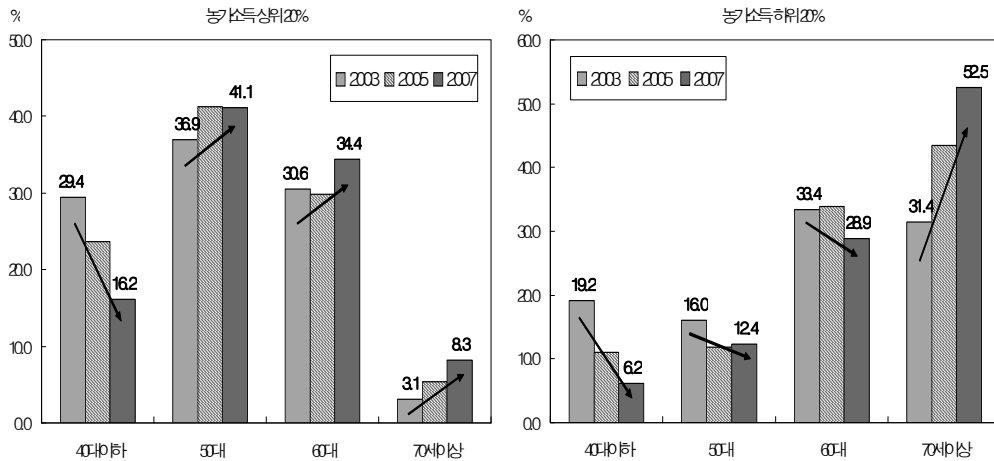
표 1-19. 소득계층별 농가소득 분포 동향

단위: 천원

	2004	2007	2008	2004~2008 연평균 증감률(%)
1분위	6,956	7,411	6,551	△1.5
2분위	16,632	16,992	16,280	△0.5
3분위	24,933	25,630	24,457	△0.5
4분위	36,715	38,250	36,000	△0.5
5분위	68,491	79,369	73,288	1.7
5/1분위 비율	9.8	10.7	11.2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1-15. 연령별 농가소득 상위 20% 및 하위 20% 농가 분포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원자료 분석.

3.4. 농가부채 동향

3.4.1. 농가부채 동향

- 농가부채는 1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농가경제통계에서 조사한 호당 평균 부채는 2001년 2,037만 6천원에서 2003년 2,661만 9천원, 2005년 2,721만원, 2007년 2,994만 6천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호당 평균 2,57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
- 시설투자, 내구성 장비구입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자산도 증가하여 부채상환능력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0. 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 가 부 채(a)	26,892	27,210	28,161	29,946	25,786
농 가 자 산(b)	243,665	298,178	356,963	395,981	341,227
장기상환능력(a/b×100)	11.0	9.1	7.9	7.6	7.6

주: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자산×1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2008년도 농가부채(25,786천원)의 내역을 보면 농업용 부채가 1,360만원(53%), 농업용 이외의 부채가 1,218만 6천원(47%)이다. 호당 평균 부채를 전체 농가 수로 환산하면 총 부채액은 31조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 평균적으로는 부채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규모별로 살펴보면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대규모 전업농가일수록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지규모별 농가의 부채 규모 분포를 보면 1ha 미만 농가는 농가부채가 1천만원 이하인 농가의 비율이 70.5%이고, 5ha 이상 농가에서는 42.2%만이 1천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5ha 이상 농가에서는 부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1) 2008년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변경에 따른 단층현상일 수도 있다.

표 1-21.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분포(2008년)

단위: %

	1ha	1~3ha	3~5ha	5ha 이상	평균
1천만원 미만	70.5	69.7	62.1	42.2	57.1
1~3천만원	12.9	14.2	19.5	22.1	18.3
3~5천만원	5.7	6.4	6.0	12.0	8.5
5천만원~1억원	6.4	6.0	7.6	11.7	8.7
1억원 이상	4.5	3.7	4.9	12.0	7.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농가의 비율이 12.0%로 1ha 미만의 농가(4.5%)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화훼 농가는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자산 규모도 커서 부채/자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서는 축사, 유리온실, 농기계, 시설장비 등의 농업자산 투자에 융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1-22.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상황(2008년)

단위: 천원, %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농가소득(A)	23,318	30,420	24,164	41,633	35,874	20,022	46,398
자산(B)	331,095	364,860	282,616	267,064	432,142	202,044	592,687
부채(C)	14,998	24,898	22,353	20,137	45,004	17,574	107,563
C/A	64.3	81.8	92.5	48.4	125.5	87.8	231.8
C/B	4.5	6.8	7.9	7.5	10.4	8.7	18.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4.2. 부채 상환 능력

- 농업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위험농가의 비중은 5.2%이고, 이 중에서 70%가 넘는 부실농가의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볼 때 과거 2006년 6.7%, 2007년 9.3%(위험농가 비율)보다는 부채 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 농가의 부채 상환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주로 활용된다.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농가이고 70%를 상회하면 부실농가로 판단한다.

- 부채규모별로 살펴보면 부채 규모가 3천만원 이하 농가에서는 대부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1억원 이상의 농가에서는 33.7%가 부채 비율 40% 이상의 위험농가이고 그 중에서도 15.8%가 부실농가로 나타났다.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70%인 위험농가의 비율은 전년도 9.3%에서 2008년에는 4.1%로 감소하였고,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부실농가 비율도 동 기간 4.2%에서 2.1%로 감소하였다.
- 이는 부채가 많은 동시에 자산도 많은 농가들이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3. 부채규모별 상환능력 분포(2008년)

단위: %

부채/자산 부채규모	1천만원 이하	1천만~ 3천만원	3천만~ 5천만원	5천만~ 1억원	1억원 이상	계
0~10%	98.2	66.1	35.6	15.7	3.7	72.9
10~30%	1.6	28.4	51.6	57.0	50.0	19.1
30~40%	0.1	2.5	5.0	10.3	12.6	2.8
40~70%	0.1	2.1	4.1	11.7	17.9	3.1
70% 이상	0.1	0.8	3.7	5.4	15.8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4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4.1. 농가구입가격 전망

- 2009년에는 국제유가가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환율 및 국제곡물가격은 상승하였다. 그 결과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투입재 전체로는 3/4분기까지 전년 대비 3.6%(실질 2.6%) 상승을 기록하였다.

표 1-24.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2005=100)

		2007	2008	2009 ¹⁾	연평균 변화율	
					08/07	09/08
종자류	명목	94.1	94.4	131.0	0.3	38.8
	실질	(80.1)	(78.2)	(105.6)	(△2.4)	(35.0)
비료류	명목	153.7	263.7	304.4	71.5	15.5
	실질	(131.0)	(218.6)	(245.4)	(66.9)	(12.3)
농약류	명목	95.0	99.0	150.2	4.3	51.7
	실질	(80.9)	(82.1)	(121.1)	(1.5)	(47.5)
사료류	명목	140.8	195.4	230.0	38.7	17.8
	실질	(120.0)	(162.0)	(185.5)	(35.0)	(14.5)
농기구	명목	112.7	120.7	148.7	7.1	23.2
	실질	(96.0)	(100.1)	(119.9)	(4.3)	(19.8)
영농광열	명목	164.8	217.4	136.5	31.9	△37.2
	실질	(140.4)	(180.2)	(110.0)	(28.4)	(△39.0)
영농자재	명목	129.3	163.3	147.7	26.3	△9.6
	실질	(110.1)	(135.4)	(119.1)	(23.0)	(△12.1)
투입재 전체	명목	120.4	145.0	150.2	20.4	3.6
	실질	(102.6)	(120.2)	(123.3)	(17.2)	(2.6)

주: 1) 1분기~3분기 평균.
자료: 통계청.

-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비목류별로 보면 종자류, 농약류, 농기구류 등의 가격지수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 종자류 가격지수는 전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9년에는 기능성 종자

- 및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8.8% 상승하였다.
- 비료류 가격지수는 2008년에 전년 대비 71.5% 증가하였던 상승률이 2009년에는 15.5% 상승하여 상승폭이 다소 감소하였다.
 - 농약류 가격지수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2009년에 전년 대비 51.7% 증가하여 투입재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 사료류 가격지수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08년 38.7%의 증가율을 나타낸 데 이어 2009년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져 전년 대비 17.8% 증가한 230.0을 기록하였다.
 - 영농광열 가격지수는 국제 유가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7.2% 하락한 136.5로 나타났다.
- 2009년 투입재 전체 가격지수는 150.2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4.8포인트 상승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달러 약세가 예상되어 투입재 가격지수는 148.8로 전년보다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재 가격지수는 2010년 148.8에서 2020년에는 164.6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농업노임 지수는 2010년 143.4에서 2020년 166.3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5. 농가구입가격지수 전망(2005=100)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투입재 ¹⁾	145.0	150.2	148.8	161.4	164.6	-0.9	1.6	0.4
(경상재)	161.5	166.6	162.2	179.8	183.9	-2.6	2.1	0.5
(농기구)	119.4	124.7	127.0	132.8	134.9	1.8	0.9	0.3
농업노임	135.1	141.3	143.4	154.9	166.3	1.5	1.6	1.4

주: 투입재는 경상재와 농기구의 가중평균이고, 경상재는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자재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함.

4.2. 농가판매가격 전망

- 2009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7포인트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쌀 가격의 하락으로 곡물은 2.5포인트 하락한 반면, 채소 가격이 5.9포인트, 축산물 가격이 25.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축산물 가격의 상승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과 한우전문식당(정육점형 식당) 증가 등 수요 증대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 2010년의 농산물 전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9포인트 높은 112.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실류 가격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곡물류는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물은 2009년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6.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2005=100)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전체 농산물	99.4	108.7	112.6	118.5	122.6	3.6	1.0	0.7
곡물류	107.8	105.3	105.6	92.1	87.6	0.3	-2.7	-1.0
채소류	96.9	102.8	105.8	125.4	133.1	2.9	3.4	1.2
과실류	83.1	84.7	84.7	83.9	88.1	-0.1	-0.2	1.0
축산물	93.0	118.3	126.5	138.8	146.1	7.0	1.8	1.0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 2010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118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후인 2020년에는 농가호수가 2010년 수준보다 17만 호가 감소한 101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9만 명(2.9%) 감소한 301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이후인 2020년에는 2010년보다 약 73만 명 감소한 228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0년 44.7%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농가인구의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5.3%, 2020년 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농가 호당 인구는 2010년 2.56명에서 2015년 2.40명, 2020년 2.26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10년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보다 약 5만 명(3.2%) 감소한 14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농림업취업자 감소율은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감소율(5.8%)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7.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단위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가호수	천호	1,212	1,194	1,176	1,092	1,010	-1.6	-1.5	-1.6
농가인구	천명	3,187	3,097	3,008	2,621	2,283	-2.9	-2.8	-2.8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	(33.3)	(34.0)	(34.8)	(39.6)	(44.7)	(2.4)	(2.6)	(2.4)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6.6	6.4	6.2	5.3	4.6	-3.1	-2.9	-2.8
농림업취업자	천명	1,633	1,538	1,488	1,264	1,010	-3.2	-3.3	-4.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4. 농지 이용과 농작물 재배 전망

- 2010년의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약 1만 4천ha(0.8%) 감소한 172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10년보다 13만 3천ha 감소한 159만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09년 1.45ha에서 2010년 1.46ha, 2020년 1.57ha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가인구당 경지면적도 2010년 57.2a에서 2015년 62.5a, 2020년 69.6a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에 비해 고령화 및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 최근에 정부의 지원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로 경지이용률은 2010년에 104.3%에서 2020년에는 110.2%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8.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단위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경지면적	천ha	1,759	1,736	1,722	1,638	1,588	-0.8	-1.0	-0.6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45	1.45	1.46	1.50	1.57	0.7	0.5	1.0
농가인구당 경지면적	a	55.2	56.0	57.2	62.5	69.6	2.1	1.8	2.1
국민 1인당 경지면적	a	3.6	3.6	3.5	3.3	3.2	-1.1	-1.2	-0.6
재배면적	천ha	1,834	1,830	1,811	1,778	1,760	-1.0	-0.4	-0.2
경지이용률	%	103.0	104.1	104.3	107.6	110.2	0.3	0.6	0.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9.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쌀	936	924	915	887	846	-1.0	-0.6	-0.9
곡물류(쌀 제외)	209	207	201	195	197	-3.1	-0.6	0.2
채소류	276	262	259	245	236	-1.2	-1.1	-0.8
과실류	154	151	151	149	147	0.1	-0.3	-0.3
특용·기타작물 ¹⁾	108	126	119	102	100	-5.6	-3.1	-0.4
답리작 사료작물	152	159	166	200	234	4.3	3.7	3.1
합 계	1,834	1,830	1,811	1,778	1,760	-1.0	-0.4	-0.2

주: 특용작물(참깨, 들깨, 땅콩)과 기타작물(인삼, 녹차, 화훼, 버섯)의 재배면적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10년의 작물류별 재배면적을 전망하면, 쌀을 포함한 곡물류와 채소류의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과실류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 9천ha 감소한 91만 5천ha로 전망된다.

- 채소류에서는 양파와 대파의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고추, 마늘, 무 등의 면적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에서는 배, 감귤, 단감 등의 면적이 감소하나 면적 비중이 높은 사과와 더불어 복숭아의 증가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4.5.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전망

- 2009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39조 27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재배업 부문에서 채소류, 특용·기타작물 등의 생산은 증가한 반면에 곡물류와 과일류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축산업 부문은 전년보다 15.1%나 크게 증가하였다.
- 2010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39조 3,22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생산액은 2009년 대풍작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5.4% 감소한 9조 5,300억원으로 전망된다.
 - 채소류 생산액은 보험세를 보이는데 봄배추, 고랭지무, 당근,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 쪽파 등 조미채소류와 수박, 참외, 오이의 생산액은 감소하고, 나머지는 증가하여 총 7조 2,100억원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는 사과, 복숭아, 단감을 제외하고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6% 상승한 2조 3,680억원으로 전망된다.
 - 축산물 생산액은 한육우와 낙농 생산액의 증가로 전년보다 6.2% 상승한 15조 4,600억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액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배업도 미미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 재배업 생산액은 쌀 생산액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채소류(특히 시설채소), 특용·기타작물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축산업 생산액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5년 이후 보험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육우의 증가 추세가 2015년 이후에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0.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업	37,073	39,027	39,322	40,171	40,943	0.8	0.4	0.4
재배업	24,415	24,463	23,862	24,446	25,396	-2.5	0.5	0.8
쌀	10,397	10,069	9,530	7,983	7,086	-5.4	-3.5	-2.4
곡물류 ¹⁾	1,419	1,509	1,423	1,573	1,718	-5.7	2.0	1.8
채소류	6,982	7,211	7,210	8,062	8,544	0.0	2.2	1.2
과실류	2,560	2,353	2,368	2,375	2,536	0.6	0.1	1.3
특용·기타	3,057	3,320	3,331	4,452	5,512	0.3	5.8	4.3
축산업	12,657	14,564	15,460	15,725	15,546	6.2	0.3	-0.2
한육우	3,439	3,930	4,951	4,869	4,279	26.0	-0.3	-2.6
낙농	1,715	1,782	1,917	2,020	2,078	7.6	1.0	0.6
양돈	4,079	4,586	4,400	4,162	4,145	-4.1	-1.1	-0.1
육계	1,610	2,214	2,103	2,393	2,534	-5.0	2.6	1.1
기타	1,814	2,052	2,090	2,282	2,510	1.8	1.8	1.9

주: 곡물류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로 구성되며 사료작물은 제외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09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0.3% 감소한 19조 5,66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16조 2,390억원인 반면,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조 3,27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재배업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쌀 이외의 곡물류와 과일류의 생산액 감소와 더불어 중간투입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에 축산업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사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와 돼지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2010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0.6% 감소하여 19조 4,550억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재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5조 9,580억원, 축산업 부가가치가 5.1% 증가한 3조 4,970억원으로 전망된다.
- 2020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19조 7,11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까지 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부가가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1-31.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업	19,632	19,566	19,455	18,896	19,711	-0.6	-0.6	0.8
재배업	16,457	16,239	15,958	15,981	16,623	-1.7	0.0	0.8
축산업	3,175	3,327	3,497	2,915	3,087	5.1	-3.6	1.1

주: 부대서비스는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09년 농업부문 총소득은 11조 4,37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그중 재배업이 8조 9,720억원이고 축산업이 2조 4,650억원으로 추정된다.
- 2010년 농업총소득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11조 4,11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소득은 전년보다 1.4% 감소하지만 축산업 소득은 전년대보다 4.0% 증가한 2조 5,650억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총소득은 미미하게 감소하여 2020년에 약 11조 4,330억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소득은 2010년 8조 8,460억원에서 2020년 9조 1,710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축산업 소득은 2조 5,650억원에서 2020년 2조 2,6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2. 농업부문 총소득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업	11,701	11,437	11,411	10,834	11,433	-0.2	-1.0	1.1
재배업	9,298	8,972	8,846	8,722	9,171	-1.4	-0.3	1.0
축산업	2,403	2,465	2,565	2,111	2,262	4.0	-3.9	1.4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6. 농가소득 전망

- 2008년의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45만원(4.5%) 감소한 3,052만원이었다. 이는 통계표본 변경에 따른 단층 발생의 영향도 있으나, 전년보다 농외소득은 약간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은 기후조건이 좋아 논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요 감소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였다. 여기에 중간투입재 비용이 증가하여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2,99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1-33. 농가소득 전망

단위: 만원, 경상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가소득	3,052	2,995	3,140	3,532	4,012	4.8	2.4	2.5
농업소득	965	958	970	992	1,132	1.3	0.4	2.6
농외소득	1,135	1,088	1,156	1,438	1,713	6.2	4.4	3.5
이전수입 ¹⁾	898	895	899	918	932	0.5	0.4	0.3
(직불금)	(54)	(54)	(114)	(184)	(234)	(110)	(9.6)	(4.8)

주: 이전수입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10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3,14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소득과 쌀 변동직불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이 전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으로 호당 농가소득은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농가호수가 계속 감소하여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 및 이전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직접지불금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농가소득은 4,012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농업부문 전망 분석을 위한 전제

-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한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하였다. KASMO는 농업부문 전망 및 정책분석 모형으로 재배업 42개와 축산업 6개 등 총 48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 2010~2020년 농업부문 전망을 위하여 거시경제 변수로 이용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06.11)를 이용하였다.
 -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CPI)의 2009년과 2010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국제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하여 각각 연평균 4.1%와 2.7%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연평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1267.5원/달러, 2010년 이후에는 국내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관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1,050원/달러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국제 유가는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Energy Outlook 2009」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6.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쌀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반영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현행 17만 83원/80kg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직접지불금 총액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쌀값 전국평균) × 85%
 -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은 2009년에 1ha당 70만원(농업진흥지역 74만 6천원, 진흥지역 밖 59만 7천원)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직불금 총액에서 고정직불금을 제한 금액으로, 수확기 쌀값 상승으로 직불금 총액이 고정직불금보다 작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자유 무역협정 타결결과가 2011년부터 동시에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쌀은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가 지속되고,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에 대해 사과, 배, 복숭아는 2015년 이후에 해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끝으로, 현재 농업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서,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각각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밝혀둔다.

